

- 대통령 인사보좌관 신설
- 국민 인사제안제도를 통한 내각 구성
- 지역차별·정실인사 배제
- 로드맵을 통한 인사혁신과제 제도화
- 온라인 국민추천창구 개설·운영



인사가 만사라고, 모두 얘기합니다.
공명정대한 인사, 모두 약속합니다.

하지만 다들 훤히 알고 계십니다.
가재는 게편, 초록은 동색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 등등...

정말정말 깨끗한 정부는 없는 것일까?
아직도 한참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국민의 열망 속에서
참여정부가 태어났음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첫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참여정부는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운영

참여정부의
뜨거운
인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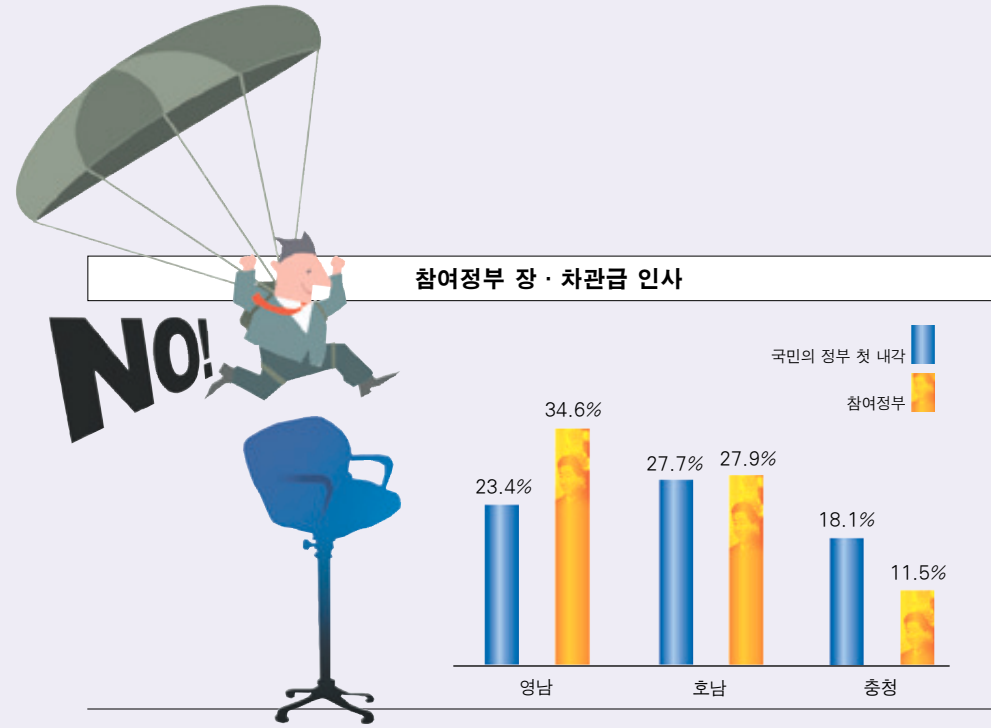


‘지역차별’이라는
장벽을 딛고서서,
‘밀실’의 어둠을 걷어내고,
가장 투명하고
더욱 합리적인 인사
참여정부가
이룩해 냈습니다.



**참여정부 시작부터
정실·밀실인사를
없앴습니다**

- 새 정부의 조각 과정에서부터 장관에 대한 '국민인사제안', '5단계 선정방식' 등의 방법을 거쳐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 대통령 인사보좌관을 신설하여 인사 추천창구를 일원화하고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등 공식적 인선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국민참여마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위직 온라인 국민 추천창구인 「삼고초려」를 개설·운영중입니다.



**다면평가제·직위공모제 등
시스템에 의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처마다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등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처(54개 기관 중 48개)에서 다면평가 실시
참여정부 출범 이후 17개 부처 100개 직위가 직위공모 방식에 의하여 임용

- 부처간 인사장벽을 허무는 한편, 실·국장급 고위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 내용에 따라 책임자를 임면하고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도록 제도화
- 원칙과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갑니다.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선·평가 시스템을 제도화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



**'지역차별'이라는
오랜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 인사에서 호남권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관 인사의 경우, '국민의 정부' 첫 내각의 호남 비율(27.7%)보다도 약간 높은 비율(27.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23.4%→34.6%), 호남(27.7%→27.9%) 증가, 충청(18.1%→11.5%) 감소
'국민의 정부' 후반기와 비교, 영남은(24.3%→34.6%) 증가, 호남은(40.8%→27.9%) 감소

- 3급 이상 일반 공무원의 출신지 분포는 큰 변화가 없고 특정지역 편중현상도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2001년 11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영남(32.9%→33.5%) 및 호남(24.1%→24.3%) 등 큰 변화가 없음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인사 시스템은 다양성·공정성·투명성·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 정무직 및 산하단체장 인사의 경우 공개추천의 활성화,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것이며, 능력과 실적을 토대로 지역균형을 고려한 인사를 확립하겠습니다.

- 「삼고초려」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인재발굴·추천 활성화, 민간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 참여정부의 국가 인사 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Roadmap)」을 토대로 정부인사 혁신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인사개혁 아젠다와 추진일정 등 개혁 청사진 제시

인사개혁 8대 과제
국가 인재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 인사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역할 재정립
각 부처 인사운영 자율성·역량 강화
공직 충원방식의 다양화·개방화
전략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재 활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수체계 개편

* 중앙인사위원회

